

지구촌 책잔치에 '한국관' 활기

제50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의 이모저모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장의 입구(맨 위).
· 올해 처음 설치된 한국관.
· 한국관 리셉션장에서는 김화복씨(한양대 국악예술과)가 거문고를 연주해 참관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독일출판인서적상협회가 주최한 제50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열렸다. 1949년 독일의 바울교회에서 시작된 이후 지구촌 최대의 도서전시회로 자리 잡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올해 105국 9천여 출판사에서 약 30만권의 책과 전자출판물 등을 선보였고 약 30만명의 참관인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약 18만 평방미터의 전시공간에 진열된 책과 전자출판물은 발품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경제침체 반영에 전반적으로 위축

특히 올해는 유엔의 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언론출판의 자유'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처음 마련한 '출판의 자유' 상에 터키의 여성출판인 아이즈 누르 자라쿨루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6일 개막식에는 독일의 헤어조크 대통령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고 이슬람 모독죄로 테러위협을 받았던 영국 소설가 셸먼 루시디도 참가해 출판의 자유정신을 과시했다.

독일출판인서적상협회 회장인 제랄드 쿠르츠는 개막식 기자회견에서 "책의 세계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이름은 상징적인 권위를 지녀왔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의 총지휘자인 피터 바이트하스는 "전자도구는 출판업자와 저작권 에이전트들에게 책의 미래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해왔다"고 전제한 뒤 "21세기에도 책과 디지털 미디어는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해마다 테마국가를 선정해 자국의 지식산업과 민족문화를 과시할 기회를 마련해왔다. 지난해 포르투갈에 이어 올해의 테마국가로 선정된 스위스는 '스위스는 바로 이웃에 있다'는 표제로 100여명의 작가·번역가, 그리고 문학연구자들을 초청해 스위스의 문화적·언어적 다양

성을 홍보했다.

세계출판의 거시적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세계출판문화의 잣대가 되어왔다. 세계 경제침체를 반영하듯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빛이 바랜 인상이 짙었다. 신간부수도 상대적으로 줄었고 곳곳에 빈 부스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탈형태적 장정과 종이의 질감을 살린 아날로그적 형태의 책들이 선보였다. 또한 동양적 정서를 강조한 책들도 진열돼 동서양의 문화적 복합양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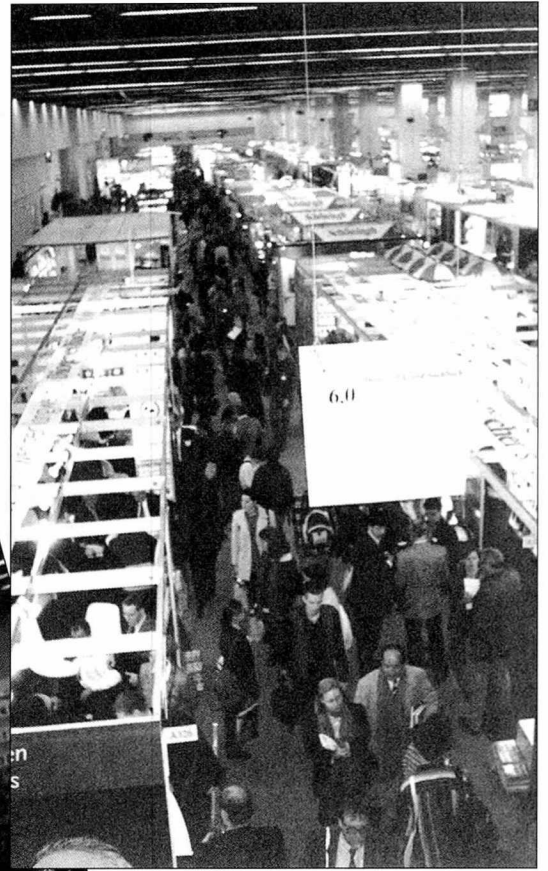
올해 도서전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전자출판이었다. 지난 1993년부터 특별홀을 설치한 전자출판관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올해는 평년작의 작황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컴퓨터 서적분야에서는 몇몇 새로운 경향들이 눈에 띄었다. 각 출판사들은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래밍 서적들에 관심을 집중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스의 급부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인터넷과 접속된 멀티미디어의 상업적인 성공은 여전히 불투명해 주춤하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멀티미디어형 온라인출판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동도서분야에서는 색채가 현란한 일본식 일러스트보다는 차분한 색채와 세밀화가 주류를 이루는 유럽식이 강세를 보였고 오디오 북의 급성장이 눈에 띄었다. 아트북에서는 특히 수작업의 장인정신이 돋보였다. 삼각형, 부채모양 등 형태파괴적 장정부터 일본종이로 제작해 끈으로 묶은 4쪽짜리 실험적 책들도 선보였다.

1961년부터 38회째 참가해온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8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한국관'을 운영했다. 가로 8m, 세로 18m의 전시공간에 고려원·영진출판사·예림당 등 16개 출판사와 출품의 공동부스에서 1175종 1572책을 전시했다. 한국관에 전시된 책들의 영문초록을 담은 《Books from Korea》도 준비해 외국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비룡소는 한국출판사로는 처음으로 국제관에 초청을 받았고 금성출판사는 아동



- 이동관에 전시된 책들. 종이책에 인형을 결합시켜 참관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 국제관에 전시된 책나무. 세계 문화의 뿌리와 열매는 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소설과 비소설 도서 전시관. 통로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참관인들이 모여 책의 밀림을 헤쳐가고 있다.



관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했다.

지난 7일에 열린 한국관 리셉션에는 약 200명의 국내의 출판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출협은 국제출판협회, ASEF 출판회의 등에 참가해 한국출판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 국제도서전의 유치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특히 2008년 국제출판협회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저작권 상담, 도서수출 등 성과

한국관에 참가한 출판사들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 현암사는 암스테르담의 유통 회사에 <전통칠교놀이>·<팽이놀이 이야기>를 각각 3천부씩 영문으로 제작해 판매하기로 했다. 영진출판사는 <프로그래밍 바이블> 시리즈를 내년 상반기까지 출판하기로 미국의 우수 출판사와 막바지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시공사는 박산하의 만화 <모범생>을 이탈리아의 로큰 코믹스 출판사와 판권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문학작품에 대한 국제적 호응도 높

은 편이었다. 문학동네는 이탈리아의 오바라오 출판사와 독일의 아베라 출판사에 신경숙·안도현·김영하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 계약서를 보내기로 했다. 세계사는 600권의 책을 미국의 멀티컬처럴북스에 판매했고 홍콩의 아시아 2000출판사에서 박완서·이인화·최문희의 작품에 대한 출판의향을 밝혀왔다.

그 외에 성안당은 러시아·홍콩·독일 등의 과학기술 출판사와 광고제휴를 맺었고, 지경사는 싱가포르의 얼리차일드후드 출판사 측에 <도란도란> 시리즈의 저작권 계약조건을 알려주기로 했다. 일본의 고단샤 출판사

는 한울의 <인동초가 피기까지>에 대한 출판을 검토중이다.

올해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대만 등이 위축된 반면 한국관은 활기를 띠어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출협의 정종진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경제력에 버금가는 문화활동을 벌이지 못했다”면서 “이번 한국관 설치를 통해 한국 출판의 국제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의 한국관 운영은 몇가지 문제점과 함께 우리 출판계에 많은 과제를 던

겨주었다. 전시공간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전시방식도 평면적이어서 많은 참관인의 발길을 머물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한 외국인보다는 주로 한국인들이 몰려 있어 집안잔치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으로 우리 출판계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의 출판사들은 세계시장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소극적인 성향이 많았다. 특히 아시아권에 대한 저작권 수출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제는 세계시장을 향한 마케팅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절 강담실 대표의 주장이다.

금세기의 마지막이 될 제51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다음해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헝가리를 주제로 개최해 전세계 출판인들을 모을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